

2010 주님의교회 임직자소개

장로

본 교회는 창립 22주년을 맞이하여
장로 1명, 집사 24명, 권사 24명이 임직되었다.



박재준

집사



김청옥



김학식



신광이



성규철



김수철



박석영



이종태



탁준한



나관주



노형래



주용규



윤용석



박일영



박기석



박인석



정준호



변춘석



이문영



이승일



박혁동



남성엽



지성호



김명훈



김광일

권사



김정순



박희주



윤영숙



윤현숙



구정숙



송경엽



최명희



안종택



안경희



이은숙



윤숙연



민옥기



이동명



윤명희



정순모



김희숙



유마노



장계영



김신애



김인숙



윤여금



이미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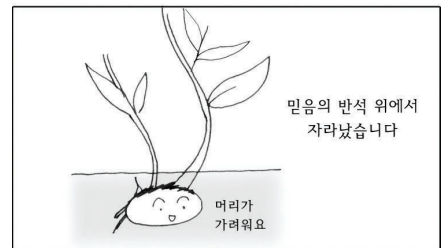
윤미숙



강은주

22년 창립 축하

허윤정



죽음과 고통의 문제는 우리가 늘 외면하고 싶지만, 살아있는 한 항상 우리를 따라다니는 그림자와도 같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죽음과 고통의 문제에 대한 귀한 깨달음으로 우리를 인도할 책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책은 홍석환목사님의 <뜻밖의 선물>입니다.

홍석환목사님의 16살된 건강하고 총명한 큰아들 현택이가 어느날 갑자기 빼앗 말기라는 판정을 받고 투병생활에 들어가게 됩니다. 현택이와 목사님가족의 의연하고도 피눈물 나는 8개월의 시간들이 절절히 전해집니다. 그러나 모두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국 현택이를 천국으로 데려가셨습니다. 먼저 보낸 자식을 가슴에 묻을 수밖에 없었던 목사님의 깊은 슬픔과 이러한 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한 수많은 의문들을 바로 해결받을 수 없었지만, 그 고통의 시간들을 정직하게 대면해 갈 때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비밀들을 하나하나 깨닫게 하셨습니다. "죽음은 새로운 삶을 향한 관문이요 시작입니다. 죽음과 친해지는 것이 평생의 영적 과제입니다." "삶은 선물입니다. 삶이 선물이면 죽음 또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으로 사랑하는 이들을 잃고 슬픔의 늪에서 울고 계신 분들께 이 책이 하나님의 위로로 다가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잊고 사는 우리들에게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줄 정말 고마운 책입니다. 한편으로는 홍석환목사님의 깊은 슬픔과 아픔 끝에 얻어진 통찰을 우리는 너무 쉽게 얻게 되는 것 같아 죄송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책을 읽은 우리들이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올려주는 이웃이 되고, 삶과 더불어 죽음 역시 선물로 받아들이면서, 오늘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여기며 감사하고 누리며 살 때, 목사님의 슬픔이 헛되지 않을 것이고 우리들 역시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일부분이 되는데 아닐까 싶습니다. 꼭 읽어보시길.. <박윤정 기자>

전화신앙 상담 ☎416-5183

화 ~ 토요일 : 오전 9 - 12시, 오후 1 - 5시 (토요일은 오전만)

편집부 기자모집안내

본 편집부에서는 <함줄함줄>에 봉사할 기자를 모집합니다.
분야 : 취재, 사진, 일러스트, 카툰.
* 연락처: 편집장-하태원 (019-313-3073)

|오늘의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
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_ 요한복음 13 : 34 - 35

통 권 _ 제 267호

발행처 _ 주님의교회 홍보출판부

발행일 _ 2010년 6월 27일

함글함글

www.pcltv.org

TEL. 416.5181~2 FAX. 416.5180

다산하라! 뛰어라! 날아라! 22세 청년 주님의교회!



본 교회는 오늘 27일을 기해 창립 22주년을 맞는다. 1988년 6월 26일 한남동 여성청년교육원에서 창립예배를 올린 후, 논현동 YMCA 2층 소망실과 정신여중고 강당을 거쳐 1997년 8월 5일 정신여중고 대망의 강당 건축 기공예배를 올리게 되었다.

본 교회는 세 분의 전임목사님을 모시고 영적으로 양적으로 성장을 해왔다. 초창기에 준수되었던 핵심가치를 지켜가면서 한국 교회가 지향해나갈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기도 했다.

박원호 목사님이 2007년 6월 17일 부임하면서 본교회가 나아가야 할 비전으로 “하나님의 나라 위해 헌신하는 알곡공동체”가

제시되면서 본교회의 영적 성장은 절정에 다다랐다.

본 교회는 7가지 가치(기도, 생명, 공동체, 의로움, 나눔과 섬김, 기쁨, 최선을 소중히 여김)를 정해 실천하고 있다. 또, 본교회가 주력하는 ‘주님의 교회 전략’은 체계적인 말씀사역과 선교공동체로서의 소그룹 활성화, 훈련을 통한 하나님나라 백성 만들기, 교회지원과 개척을 통한 하나님 나라 확장, 목적에 따른 다양한 예배, 온전한 신앙을 추구하는 교회교육과 청소년 집중 사역, 통합적인 환경복지사역의 활성화이다.

한편, 박원호 담임목사님은 지난 4월5일부터 6월 23일까지 유

니온 신학교및 이스라엘에서 제자화사역 연구를 무사히 마치고 귀국하여 앞으로 이어질 목사님의 새로운 사역이 기대된다.

오늘 예배는 1부-4부에 걸쳐 임영수 목사님이 설교하며 각 예배마다 케익커팅식을 갖는다. 아울러 4부에서는 임직식이 예정되어 있다.

22년의 아름다운 핵심가치를 유지해가면서 지금까지 성장해온 본 교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한국교회를 위한 성도들의 기도와 봉사가 뒷받침되어야 알찬 알곡공동체가 더욱 영글 것으로 기대된다.

로 뎀 나 무



| 뿌리 깊은 나무 |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골2:7)

나무를 심으면서 배운 것이 있다.
뿌리가 살아 있으면 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무를 심고 나서는 흙을 꼭꼭 밟아준다.
흙 속에서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의 뿌리는 어디에 내려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서 자라야 한다.
그럴 때만이 올바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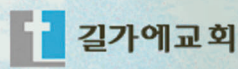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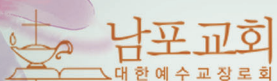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5:22-23)

역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지금 내가 맺고 있는 삶의 열매는 무엇인가.
그것으로 내 삶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주님!
저의 의지와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아멘.

〈엄혜숙 기자〉

주님의 교회 창립 22주년을 축하합니다.



담임목사 : 박영선

학교법인정신학원
중학교 교장:정혜순/고등학교교장:이충욱

담임목사 : 이인호

임영수 목사 설교 / 창립기념음악예배 2-3면

특집 원로에게 알아본다 4-6면

2010 전교인수련회 7면

2010 임직자소개 / 추천도서 외 8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에스더 4:1-14



〈임영수 목사〉

구약 성서에는 여성의 이름으로 된 책 두 권이 있습니다. 하나는 룻기며 다른 하나는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는 주전 480년경 바벨론 다음 강대국으로 등장한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거주한 유대 민족의 구원 사건을 다룬 매우 드라마틱한 역사이야기입니다. 강대국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수가 고레스 왕 때 본국으로 귀국하게 됩니다. 그러나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은 다수의 유대인들은 바벨론 다음 강대국으로 등장한 페르시아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들 가운데 모르드개 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친 딸처럼 양육하는 그의 삼촌의 딸 에스더가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매우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이 책에는 하나님이라는 명칭은 나타나지 않지만 당신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의 손길이 책 전체에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대신 하만이 국내에 거주하는 유대인 전체를 말살하려는 음모는 유대인들에게 심각한 위협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 아름다운 에스더와 그의 지혜로운 사촌 모르드개가 용기 있게 대처하여 유대인은 위대한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에스더서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드리는 것은 이 책에서 전개되어가는 사건 배후에 하나님이 서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하만의 학살 계획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상징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모르드개와 에스더의 역할입니다.

에스더서의 이야기는 아하수어로 왕의 겨울 거처인 수산궁에서 시작됩니다. 그 당시 페르시아의 왕이던 아하수어로(크세르크세스)는 살라미스에서 그리스 군대에 의해 패배를 당하고 후궁들에게서 그 위안을 찾게 됩니다. 왕은 백성들을 위해 푸짐한 연회를 베풀고 왕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며 왕비 와스디의 아름다움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연회의 절정으로 계획하게 됩니다. 그런데 왕후 와스디는 사람들 앞에 나오기를 거부하게 됩니다. 왕의 신하들은 왕에게 그녀를 폐위시키고 다른 여자를 왕비로 삼자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왕후가 처벌받지 않고 넘어가면 신하들이나 평민들의 아내들도 교만해질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왕은 신하들의 제안을 받아드려 왕후를 폐위시키고 전국에서 왕비가 될 후보들을 모집하게 됩니다. 거기에 에스더가 그의 삼촌의 조언에 따라 자신이 유대인 출신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응모하게 됩니다. 전국에서 모여든 왕비 후보들의 비의 경연대회에서 에스더가 영예의 면류관을 차지하게 됩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후 삼촌 모르드개는 왕궁의 한 행정관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 때 아하수어로 왕을 대신해서 절대 권력을 행사하던 하만과 모르드개 사이가 갈등의 관계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만이 왕궁으로 드나들 때 다른 사람들은 다 하만에게 머리를 숙여 절을 하는데 모르드개 만든 곳곳이 서 있곤 하였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개를 매우 못 마땅하게 여기던 중 그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모르드개는 물론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 모두를 학살하고자 하는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 전에 모르드개는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발견하여 그 사실을 에스더를 통해 왕에게 아뢰게 되었고, 그 사실이 왕실일지에 기록되게 됩니다. 하만은 유대인들을 말살하기 위해 가장 좋은

날을 택일하기 위해 제비(부림)를 뽑습니다. 그리고 하만은 뇌물과 거짓말로 왕을 설득하여 제국 내의 모든 유대인들을 11개월 후 지정된 하루 사이에 다 진멸할 수 있는 조서를 공포하도록 합니다.

이 조서는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을 초래하게 됩니다. 모르드개는 그 음모를 알아채리고 에스더로 하여금 유대인들을 살리도록 왕에게 호소하려고 요청합니다. 에스더는 주저하며 고심하게 됩니다. 그 때 모르드개는 에스더에게 다음과 같은 말로 전하면서 에스더의 결단을 촉구하게 됩니다.

“이 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놓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개의 말을 전해 받은 에스더는 고심 끝에 그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모험을 무릅쓰고 왕을 알현하고 왕을 설득하기 위해 자신이 유대 민족 출신이라는 사실을 밝히기로 결심합니다. 에스더는 자신을 비롯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삼일 간 금식을 하게 한 후 왕 앞에 나타나 지혜롭게 왕을 하만과 함께 잔치에 초대합니다. 잔치 자리에서 에스더는 그의 소청을 밝힐 좋은 기회를 얻기 위해 두 사람이 그 다음 날 두 번째 잔치에 다시 참석하도록 요청합니다. 두 번째 잔치 자리에서 에스더는 왕에게 하만의 음모를 소상하게 아뢰면서 자기와 동족을 구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왕은 하만이 모르드개를 매달기 위해 만든 이십삼 미터나 되는 높은 장대에 하만을 매달게 합니다. 그리고 왕은 그가 인친 유대인 학살동의 안을 변경할 수 없지만, 에스더의 간청을 받아들여 페르시아인들이 유대인들을 학살하기로 한 그 날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스스로 방어를 할 수 있다는 새로운 조서를 각 도에 공포하게 됩니다.

이 조서는 처음 조서에 의해 의도된 결과를 변경시키게 되고, 모르드개는 높은 자리에서 올라서게 됩니다. 두 조서가 지정한 운명의 그날이 오자 유대인들은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 걸쳐서 도시마다 그 대적들을 패배시키고 살육하지만 재산을 노략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날은 경축의 날이 되고 부림절이라고 불리는 유대인의 축일이 됩니다. 이 단어는 ‘제비’라는 뜻의 앗시리아어에서 유래되었는데 바로 하만이 유대인 살육을 위한 날을 택일하기 위해 제비를 뽑은 데서 연유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소한 일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에스더서에서 그러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여인 아하수어로 왕비 와스디의 반항사건 그리고 하만과 모르드개의 개인적인 갈등이 결국 나중에 결정적인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모든 사소한 사건들이 결국 ‘이 때를 위함’과 연계가 되어있음을 보게 됩니다. 에스더서에서 강조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후에 오른 것이 하나님의 때를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개인의 행동 하나하나를 로봇처럼 조종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각 개인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며,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의 때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때를 초월해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능가하는 어떤 일을 만들어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생의 여정에서 지고 가는 짐이 너무 무거워 피곤하고, 힘들 때 내가 왜 이러한 짐을 져야 하느냐고 하나님께 항변할 때, 조용한 묵상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야! 나는 이 때에 너의 섬김, 너의 희생, 너의 도움이 필요한다.

현대에 와서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삶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삶의 혁명을 가져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생명체를 만들기도 하고 변조시키기도 할 수 있는 데까지 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 그의 능력, 그의 의를 능가할 힘은 없습니다. 그러한 어리석은 시도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면서 하나님의 행세를 하려는 모든 시도는 하나님을 능가하는 어떤 절대적인 힘이여야 하는 데, 하나님을 능가할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그와 같은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현실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 배후에 서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삶의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현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무의미한 것이 없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소한 일도 하나님의 때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믿고 현실을 긍정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한 사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의 젊은이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세속적인 가치에 표준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의 삶의 가치와 목표는 명예, 돈, 성공, 화려함입니다. 그는 자기 생의 가치에 맞지 않는 것은 무엇 이든지 무시하게 생각합니다. 그는 시간 낭비처럼 생각되는 일은 피해서 다른 사람보다는 빨리 성공의 지름길로 달려갑니다. 그의 인생의 목표는 오로지 그가 생각하는 목표만을 성취하는 것이며, 그 외 것은 다 의미 없는 것입니다.

다른 한 사람의 경우는 그와는 반대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신의 삶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은 물론 살아가면서 그가 감당해야 할 일들 가운데 하기 싫은 일 하기 좋은 일 가리지 않고 의미 있게 받아드리면서 성실하게 과정을 살아갑니다. 그 사람은 인생의 중반을 넘어서서 섬김의 자리에 있게 될 때, 그는 그 자리에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그때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 배운 지식이 거기서 통합적으로 매우 소중한 자료로 사용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 때를 위해 그러한 인생의 여정의 길을 걷게 하셨음을 알고 감사하게 되며, 지나온 모든 날을 새로운 의미로 받아드리게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나 한 개인의 인생의 여정에서 일어나

는 일이 하나님의 때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생의 과정을 상실하지 않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은 고난대로, 행복의 순간은 그것대로, 슬픔은 슬픔대로, 투병의 시간은 그것대로 거부하지 않고 의미 있게 받아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가 된 후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생의 여정에서 경험하고, 배운 지식 모두가 소중한 자료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깨달아오고 있습니다. 목사와는 상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 대학에서 경제학 공부, 그리고 심리학에서 배운 인간이해, 군대 경험, 식당에서 쿡으로 일한 경험, 어린 시절 밭을 일구고, 지계를 지고 나무를 해서 도끼로 나무를 쪼개어 땀감을 마련한 일, 비록 능통하지는 못하지만 몇 가지의 어학 능력, 중고등 학생시절 음악 시간에 악기 없이 계명으로 노래를 부르곤 한 훈련, 운전, 컴퓨터, 결혼생활, 살아오면서 겪은 정신적 고뇌, 모든 것이 현재 이 때에 모두 소중한 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보다 더 소중한 것은 지금까지 생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길들임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길들이미 없었다면 이러한 섬김의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가지 아쉽게 생각되는 것은 좀 더 순간순간을 성실하게 생을 긍정적으로 살아오지 못한 것입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나이가 들어 중년을 넘어서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이 때를 위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은 매우 큰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생을 마치는 순간까지 그러한 순간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때를 위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하여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구경꾼이 아닌 섬김의 자리에 있게 될 때 그 때까지의 자신의 삶이 이 때를 위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순간에 그는 생의 단편적이고 부분적인 삶에서 통합적인 삶으로 들어서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태어나는 생명치고 하나님의 때와 무관한 생명은 없습니다. 인생의 봄, 여름을 살아갈 때까지는 그러한 숨은 생의 의미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을 어느 정도 충실하게 살아온 사람이라면 생의 여름 후반, 또는 가을에 섬김의 자리에 들어설 때 모든 것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생의 행로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을 새로운 의미로 받아드리게 되고 희망과 감사로 생의 남은 시간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때란 나 자신의 개인 적인 목표에 도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삶으로 전환이 이루어 질 때 밝혀지는 시간입니다. 거기에는 사회적으로 지위의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수입의 많고 적음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인생의 늦은 여름, 또는 가을에 들어서서도 오로지 자신의 안일,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는 이 때란 구원의 시간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평생 행위만을 추구해온 삶에는 이 때를 위협이란 거룩한 의미의 시간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존재를 추구하면서 순간의 생을 성실히 살아온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 때라는 고귀한 의미의 시간이 있게 됩니다. 이 때란 자신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을 내놓아야 하는 결단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순간에 결단을 하므로 인해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도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진정 참되고 의미 있는 일이나 순간을 위해 결단하고 자신을 내놓는 것은 이 때를 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생의 여정에서 지고 가는 짐이 너무 무거워 피곤하고, 힘들 때 내가 왜 이러한 짐을 져야 하느냐고 하나님께 항변할 때, 조용한 묵상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애야 나는 이 때에 너의 섬김, 너의 희생, 너의 도움이 필요하단다.

우리 자신이 병들었을 때, 실패했을 때, 역올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 하는가? 라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애야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다. 너의 고집, 너의 교만, 너의 탐욕, 그릇된 삶이 너를 그렇게 만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를 떠나지 않고 이 때에 너를 사람으로 만들려고 한다.

▶ 임영수 목사 약력

1941년 신의주 출생.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장신대신학대학원, 연세대 연합신학원,

스위스 융연연구소와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

미국 프린스턴신학교에서 연구활동,

평강교회, 남대문교회, 영락교회, 주님의 교회를 거쳐 현재 모새골 대표.

영광 그리고 평화를 위한 찬양 Gloria & Dettingen Te Deum



22살 청년이 된 우리 주님의교회가 생일에 즈음하여 '창립기념 예배'를 찬양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지난 6월 23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시작된 찬양예배는 본 교회 3부 살롬찬양대(대장:최영배 안수집사, 지휘:이동훈 안수집사) 주관으로 무대에 올려졌다. 김창안 장로의 기도로 시작된 예배는 유성훈 목사의 '하나님을 믿는 백성(성도)의 삶의 목적(사43:7)'을 주제로 한 말씀 선포가 있었고, 이어서 150여명의 살롬찬양대원과 오케스트라가 함께 만들어내는 영광과 찬양의 무대가 한 시간 넘게 이어졌다.

오케스트라의 협연 속에 살롬찬양대의 찬양발표는 2부로 구성되었다. 1부에서는 Vivaldi 작곡의 칸타타 "Gloria"(영광) 전곡을 합창과 아리아로, 곡의 제목처럼,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렸다. "Gloria"(영광)는 Vivaldi의 깊은 신앙심에서 우러나온 곡으로, Vivaldi 특유의 경쾌함이 넘쳐나며 바로크 음악의 특징인 질서와 경건함을 잘 보여주는 곡이다. 휴식 시간 없이 곧 이어서 발표된 2부에서는 Handel이 작곡한 "Dettingen Te Deum"(평화/축제를 위한 찬양)으로 우리 교회의 창립 22주년을 감사하며 축하한 축제의 향연이었다. "평화를 위한 찬양"은 영국으로 귀화한 Handel이 1743년 6월 27일 영국과 오스트리아 연합군이 Dettingen에서 프랑스군을 물리치고 승리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작곡한 것이다. 마침 6월23일 공연일 새벽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축구가 월드컵 첫 해외원정 16강 진출이라는 쾌거를 이루었기에 기쁨이 배가된 축제의 찬양이 되었다. 이번 발표에서 협연을 담당할 세종필하모닉오케스트라(악장:박농우)의 경쾌하면서도 장엄하고 우레와 같은 굉음을 내다가 잣아들듯이 맑고 수준 높은 연주가 있었기에 우리의 잔치가 더욱 즐거웠다.

살롬찬양대는 이번의 발표를 위해 지난 5개월여 동안 준비하였다.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연습을 중반까지 같이 해오던 문창복 권사님께서 지병으로 병상에 눕게 되었고 병상에서도 우리와 함께 영광의 찬양을 드릴 수 있기를 간구하셨으나 발표 일주일 앞두고 지난 6월 15일 소천 하셨다. 당일의 발표에는 권사님의 아들(마정대 집사)이 어머니를 대신하여 권사님의 이름이 쓰여진 악보로 찬양에 참여했고 그 후 악보는 아들에게 영구증정 되었다. 권사님을 하늘나라로 떠나보내며, 건강한 육신으로 찬송할 수 있는 우리의 형편에 감사했고, 하늘에 계신 권사님도 기쁘게 즐기셨으리라 믿는다. 이번 발표를 위한 연습과정을 통해 찬양대원으로서의 자부심과 대원 간의 따뜻함을 느꼈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는 축복이 있어 큰 은혜를 입었다. 보다 많은 경제적 지원도 필요하고 홍보도 필요하고 필요한 것이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찬양할 수 있음에 더욱 감사하는 공원이 이제 끝났다. 다음에는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찬양으로 조금 더 많은 교우들과 나누고 싶다. 그 다음에는 그보다 조금 더 많은 교우들과 함께 Gloria~ 영광을 찬양할 수 있기를 갈망하며 기도한다. <살롬찬양대 이준실 집사>

주님의교회 정체성과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논의

들어가는 말

한국사회는 급격히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초산업 사회는 자녀교육 비용의 증가를 초래해 출산율을 떨어뜨리고 있다. 출산율 감소는 교회의 새로운 구성원 공급에 차질을 빚게 하고, 이교회 저교회 떠돌아다니는 유랑교인을 탄생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가운데 본교회의 핵심가치는 교회개혁을 갈망하는 많은 교인들에게 호의적 평가를 받아 왔었다. 이제 창립 22주년을 맞는 이 시점에서 그간 변화된 사회구조를 감안하면서 본교회의 정체성과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다. 이에 본 교회 두 분의 장로(김도묵 은퇴 장로, 박호길 서기 장로)님을 통해 본교회의 핵심가치에 대해 의견을 들어 보고 발전적 대안을 모색해 보기로 했다. <편집부>

■ 주님의교회 정체성 _ 김도묵 은퇴장로

우리 교회가 세워진 후 2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창립멤버들의 나이도 얼마 전부터 70고개를 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창립기념 특집호의 원고 요청도 있고 해서 (나이 더 들어 기억력이 쇠하기 전에) 몇 가지 중요한 일들을 기록으로 남겼으면 해서 펜을 들었습니다.

*처음서원

창립전야에 있었던 기도모임에서 공동체 전원이 교회에 산의 50% 이상을 이웃사랑의 실천을 위하여 선교와 구제에 사용하기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하였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헌금의 50% 이하의 금액으로 교회살림을 하겠다는 내핍과 검약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이의 첫 번째 실천으로 창립예배에 들어진 헌금 전액(1988년 당시 5백만원)을 전남 묘도교회 건물 신축에 쓰도록 보내었습니다. 친구의 셋집에 얹혀 사는 격인 당시의 교회 사정을 감안하면 참으로 무모하다고 할 만큼의 용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결의를 하게 된 배경에는, 당시 강남의 대형교회들이 주변의 주택들을 사서 부수고 짓고 또 뜯고 하면서 끝없는 건물 확장을 위하여 교회재정의 대부분을 쏟아 붓는 것을 보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창립교인 모두가 공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생긴 첫 번째 성전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지은 장막이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머물다 내일 뜰어지고 갈 천막이었습니다. 웅장하고 화려한 구라파의 교회당들이 신도는 없고 관광객들의 기념사진 배경으로만 쓰이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도 한국의 교회들은 경쟁적으로 크고 화려한 건물을 세우는데 교회재정의 전부를 쏟아 붓고 있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나라”는 찬송가 가사로만 존재하여야 하나요?

이 서원기도가, 흐르는 세월이나 변화하는 세대와 무관하게 지켜져 이어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꼭 50%이어야 되느냐? 그 정신만 존중하고, 그때그때 재정 형편에 따라 융통성 있게 집행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만, 우리가 10일조를 지키자면 소득의 10%는 너무 많으니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 5%나 8%만 바치자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10%를 먼저 따로 떼어 놓고 가계를 꾸리는 것처럼, 50%를 선교/구제를 위해 남겨 놓고 나서 다른 예산을 세우는 것이 바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초기에는 전 교인이 예배당을 청소하였습니다. 경비 절약을 위한 것이었지만 더 큰 소득은 우리들의 예배처소를 우리 자신들이 청소하는 데서 오는 보람과 기쁨이었습니다. 전 교인이 함께 걸레와 빗자루를 들었을 때 얻어지는,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보람과 공동체의식은 대단히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만석꾼으로 13대 400년을 이어 온 경주 최부자택은 1년 소출인 벼 3천석 중에 천 석만으로 살림을 살고 천 석은 주위의 굶주리는 이웃을 위해, 천 석은 손님을 대접하는 일에 썼다고 합니다. 그 분들은 삼 분의 이를 남을 위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떠느리는 시집와서 3년 동안 무명옷 만 입고 지내도록 내핍을 생활화한 것 입니다.

우리교회는 한 때 60%를 밖으로 보내고 40%로 교회 살림을 산 적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대외계정을 재정의 50%에서 60%, 70%로 늘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비율이 늘어 갈수록 우리 교우들의 보람과 기쁨이 커질 것이며 공동체에 대한 신뢰와 긍지가 늘어나게 되고 헌금도 비례하여 늘어날 것으로 믿습니다.

*아שר야할분도상주실 이도오직한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의 휘장이 가운데로 찢어졌으며 그 후로는 모든 믿는 자가 하나님께 직접 예배하고 교통할 수 있는 특권을 향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우리의 정성도 하나님께 직접 바치고 하나님만 아시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무기명으로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날 많은 교회들이 건축자금이 필요할 때 부흥사경회를 열어 부흥사 목사가 회중 앞에서 “5천만 원 하실 분 손 드세요”, “3천만 원 하실 분 없으십니까?” 하며 경매장과 같은 장면을 연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가 중직자 임직 때가 되면 “장로 천만 원”, “권사 오백만원” 하면서 반강제 공개적으로 기념품 헌납을 강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행이 사람에게 알려지느냐 바 되면 하늘에서 받은 상이 남지 않습니다. 사람의 칭송과 하나님의 상급을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는 한 번에 일억 원의 십일조를 내는 분도 있고, 지금 교회에 있는 오르겐, 피아노들은 전부 무기명으로 사서 바친 분들에 의해 마련된 것입니다. 왜 누가 얼마나 헌금하는지 알아야 합니까? 알면? 그만큼 상이나 복을 줄 수 있습니까, 사람이?

면죄부를 팔면, 헌금액수는 굉장히 늘겠지만 그것은 옳지 않은 일이었기에 프로테스트(저항)해서 세운 프로테스탄

트들의 교회가 우리 개신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무기명으로 헌금하니까 헌금 총액이 비슷한 규모의 다른 교회보다 적다고 얘기하는 분 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의 아름다운 전통을 깨고 옛날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반개혁적인 일입니다.

*다윗, 세종대왕, 조지 워싱턴, 이재철

옛날 왕조시대에 지도자의 임기는 없었습니다. 다윗왕이나 세종대왕 같은 분만 계속 나온다면 절대왕정이 민주공화정 보다 더 낫다고 할 수 있겠으나, 이스라엘이나 유대왕 가운데, 칭송받을 만한 왕이 몇 명이나 있었으며, 조선왕조에도 군주다운 군주가 몇이나 있었습니까? 그래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차선택으로 임기가 있는 민주공화정이 대부분의 나라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입니다.

우리 교회는 당회원 모두에게 정해진 임기가 있습니다. 임기가 있음으로 해서 오는 역기능도 당연히 있을 것 입니다. 그러나, 임기가 없을 때 오는 역기능은 훨씬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장로가 은퇴하면서 한 얘기입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10년은 너무 길더라. 장로의 할 일을 제대로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 이 짐을 벗을 수 있어 홀가분하면서 기쁘고 또 죄송하다.”

10년을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의 두 배며 미국 대통령 임기의 두 배반이 넘는 시간입니다. 불철주야 혼신의 힘을 다해 봉사하는 사람에게는 길게 느껴지는 긴 기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쉬엄쉬엄 하자면 10년이 후딱 지나가서 짧게 느껴지겠지만, 전심전력으로 모든 것을 다바쳐 봉사하는 사람에게는 10년이 참 어렵고 긴 시간입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 일컫는 조지 워싱턴에게 8년의 임기가 끝났을 때에 더 해달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재철 목사님이 10년 임기가 되었을 때 더 계속하기를 바라는 교인들의 하소연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10년을 봉사하고 나니 몸도 마음도 쇠잔하여 더 버틸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시간이 아까워 같은 건물(강남 YMCA)에서 할 수 있는 수영도 못하고, 마포의 자택까지 왕래하는 시간이 아까워 교회 근처 논현동에 방을 얻어서 거처할 만큼 존음을 아껴서 봉사한 분에게는 10년이 너무 긴 시간이었을 것 입니다.

임기가 짧아서 장기계획을 세울 수가 없다는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몇 백 년에 걸쳐 짓고 있는 바르셀로나의 성당 건축에서 교훈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한 세대가 조금 짓고 가면, 다음 세대가 이어 짓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완성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에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다 아셔서 마무리 하실 것 입니다.

이다음에라도 세월이 많이 흘러 임기제의 역기능이 순기능 보다 훨씬 커 보이고, 교인 모두가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때가 올 수도 있을 것 입니다. 그 때는 우리나라 헌법 28조 2항의 입법취지와 같이 “임기제 개정을 제안할 당시



의 당회원에게는 개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하면 진심으로 교회의 장래를 위해서 개정을 제안하는 분들의 충정이 교인들에게 더 잘 전달되어지리라 믿습니다.

*무소유가 우리의 전통인가?

“무소유”가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전통의 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전적으로 오해임을 밝혀 두고자 합니다. 당회를 비롯한 어떤 공적 회의에서 이를 거론하거나 결의한 적이 없습니다.

재정의 50% 이상을 이웃사랑의 실천을 위하여 밖으로 내 보내다 보니 결과적으로 교회건물을 소유할 수 없게 된 것이지, 교회건물을 소유하는 것을 나쁘게 생각하거나, 기능한데도 일부러 소유하지 않기로 한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 동안 자동차도 여러 대 소유하고, 목사주택도 소유하고, 기증받은 것 이었지만 땅도 소유하였습니다. 필요한 최소한의 것을 소유하는 것이 비판 받아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의 선물, 정신학원강당

지금 생각해도 꿈과 같은 일이 우리 공동체에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재정의 50%를 대외계정으로 사용하다 보니, 여러분의 저축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고, 따라서 우리들 자신을 위한 예배당 건물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을 때에 홀연히 정신여고 합창단이 우리 교회에서 공연을 하게 되었고, 인솔자인 교목선생님이 지나가는 말로 제안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꿈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 이토록 넓고 과분하게 아름다운 예배처소가 주어졌으니... 50% 이상을 남을 위해, 선교/구제를 위해 쓰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가사히 여기시고 내려주신 선물이라고 할 수 밖에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역사하신 주님의 자상하신 배려야 다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100대 건설업체 중의 하나인 강산건설의 대표가 우리 교인이 된 것과 임영수 목사님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신 것이었습니다. 한국 개신교의 대표 교회인 영락교회 담임목사 이셨음에도 금호동의 조그만 아파트에 사시고 경차인 엘란트라를 고집한 분이시니 절약해서 교회 살림 사는 데는 따를 사람이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임 목사님 계시는 동안 강산건설이 외상으로 건설한 부채도 갚고 충족까지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꿈도 꾸지 못했던 건물이 그냥 선물로 주어졌기에, 지금도 감사하고 황송하고, (적은 예산을 들여 검소하게 지었지만) 학교의 체플일 이면서 우리의 예배당이어야 하는 두 가지 목적에 잘 맞아 어느 한 구석 나무랄 데가 없는 건물로 생각됩니다.

우리에게 운명적으로 주어진 정신학원을 중심으로 하는 학원 선교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신학원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항상 몸을 낮추어야 합니다. 미국은 세계 제일의 원조국가이지만 피원조국가 국민들에게서 “양키 고홈”이라는 나쁜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베푸는 자라고 생각하며, 조금이라도 우월감을 표시하면, 베푸는 액수와 상관없이 욕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은 우리가 선교하고 이끌어야 하고, 도와주어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

가 자칫하면 학원을 통한 전도가 아니라, 오히려 정신학원 출신들을 기독교에 혐오감을 가지는 안티 기독교인들로 만들 수도 있음을 늘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버려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것

“전통이 성장과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저는 그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전통이 어떻게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지” 얘기 해 주시기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막연하게 “전통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는데 지장이 있다”고 얘기하면 우리 교회에 새로 나오시는 분들은 이 교회에 대단히 고질적인 나쁜 전통이 있고 이를 고집하는 낡은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게 될 것 같습니다. 무엇을 바꾸어야 하고 무엇을 지켜야 할지는 토론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의견 수렴과 의견 일치에 다다르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버려야 할 것과 바꾸어야 할 것을 현명하게 골라서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 한편에 소중히 지켜야 할 것은 오래 변함없이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 되어서는 안 되겠기에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몇 천 년 전에 하던 절기예식을 그대로 지키며, 초막을 지어놓고 그 안에서 쓴 나물과 무교병을 씹으며 선조들의 고난을 되새기는 유대인들의 전통지키기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2년 밖에 안되었지만, 강산이 두 번 바뀌는 세월 동안 우리 공동체에 전통으로 이어지고 귀하게 여겨지는 것들은 그럴만한 가치를 지녔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담임목사님들의 영적 지도와 이념이 녹아있으며 공동체 전체구성원의 동의와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전통이라면 세세년년 우리의 아들딸과 그들의 손자와 손녀 대에 까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지 않은 것이라면 용기를 가지고 지혜롭게 고쳐야 하겠습니다. 이때, 바르게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교회를 무척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 동안의 경험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이십일 세기 초엽의 때에 박원호 목사님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맡기실 새로운 역할이 무엇일까 하며, 그 펼칠 꿈같은 그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곡 공동체인 건강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 자를 온 세계에 보여주게 되리라 믿고 기다립니다. ♠



■ 주님의교회 새로운 패러다임의 최적화 - 박호길 장로

주님의교회는 이미 자타가 인정하는 소위 대형교회 반열에 들어섰고, 또한 풍부한 교회자원(인적, 물적, 영적)을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교회의 선두주자교회로써 선두 나서기에 머뭇머뭇 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필자는 시대적 패러다임의 변화에서 찾고자 한다. 즉 시대는 변하고 교인의 요구는 달라졌으나 과거의 패러다임과 플레임에 구속되어, 현재의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다. 해법은 시대적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진단하며, 우리를 가로 막고 있는 기존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시대적 패러다임의 최적화로 진보시키고자하는 노력에서 비롯된다고 믿는 바이다.

A. 역대 담임목사님들의 목회철학

제 1대 담임목사는 자필서적을 통하여, 제 2, 3, 4 대는 직접적인 말씀선포를 통하여 역대의 목회철학을 분석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제 1대 이재철 목사(1988~1998년)-'본질성의 회복' 교회주인의 회복, 교회현금의 회복, 교회본질의 회복, 예배, 사고와 시야 성경공부선교의 회복.-〈밑그림〉

제 2대 임영수 목사(1998년~2002년)-'영적 시아의 회복'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동참하자. 창립이념을 너무 자랑하지 말라 율법주의에 빠지기 쉽다. 이것을 뛰어넘어 저 지평선 넘어 준비해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자.-〈큰그림〉

제 3대 문동학 목사(2003년~2006년)-'사역성의 회복' 사회와 불신자를 위한 손과 발이 되어 섬기는 사역, 믿는 자를 위한 즐기는 교회가 아니라 불신자 접근하여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 구체적 사역의 목표를 제시-〈구상화〉

제 4대 박원호 목사(2007년~현재)-'하나님나라의 회복' 하나님나라위해 헌신하는 알곡공동체. 예수님의 친구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리라. 하나님나라의 사랑과 이웃사랑. 그리고 말씀 사랑에 충실함.-〈완성도〉

여기서 우리는 역대 담임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하여 일관된 메시지의 흐름과 그 주제가 [회복의 목회]로 일치됨을 알 수 있다. 회복의 목회라는 일관된 주제는 우리 시대에 산업화→민주화→선진화→통일시대로 이어지는 역사적 패러다임의 흐름을 거치면서 시대적 메시지로 선포되었다.

역대의 목회철학을 회화적 표현을 빌린다면 제1대는 <밀그림> → 제2대는 <큰그림> → 제3대는 <구상화> → 제4대는 <완성도>로 이어지는 그림이 그려졌고 또 그려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말로 하나님은 주님의교회를 섭리, 주관, 개입 하시고 우리를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도 사랑하고 계신다고 믿음으로 고백 할 수밖에 없다. 역대의 담임목사 목회철학의 시대적 진보에 맞춰 우리 교인들의 신앙생활의 시대적 진보도 이끌어 주었구나 하고 감사드린다. 이러한 긍정적인 시대적 역사관으로 조명해보면, 어느 한 목회자의 말씀 잣대로 다른 목회자를 재단하는 것은, 말씀편식이 신앙건강 유지에도 좋지 않다는 것을 일깨워 준다.

이제는 박원호 목사를 통한 하나님나라의 회복이라는 <완성도>가 그리기가 시작되었으니, 주님의 교회에게 이 시대에 주어진 시대적 패러다임 최적화의 과제라고 아니할 수 없다.

B. 주님의교회 교회정신

주님의교회가 1988년 6월 26일에 창립되었고, 창립정신은 ①50:50(현금을 바로 사용하는 현금의 회복이라는 차원에서 시행. 11조를 근거로 50%는 교회유지경비로, 나머지 50%는 교회 밖 이웃을 위해 사용 한다는 것) ②교회자체건물 무소유(교회는 건물이라 아니라 바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인 우리자신 사람이라는 것) ③무기명 현금(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면서 인간의 이름을 쓰다는 것은 현금의 의미를 왜곡한다는 것) 이다.

필자 또한 특정 사람이 교회의 주인 노릇하는 교회가 싫어서, 주님만이 주인 되심을 잊지 말자는 취지의 '주님의교회' 명칭과 창립정신에 매료되어, 1998년 이명증서를 가지고 주님의교회 교인이 되었다.

주님의교회 역사를 새로운 교회 패러다임 변화의 관점에서 크게 3부분으로 구획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첫 구획-1988년 창립과 개척시기. 둘째 구획-창립10년 후 1988년 정신학원과 만나 대강당 건축 이후 시기. 셋째 구획-2008년 창립20주년 후 박원호 목사님의 새 도약 선포 이후 시기라 하겠다. 주님의교회 역사는 하나님이 섭리, 주관, 개입 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는다. 그러면 시대의 변화와 더불어 새로운 교회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교회정신은 어떻게 볼 것인가. 창립 때 창립정신이 정신학원과의 만남과 새 도약 선포로 이어지는 중요한 포인트의 시대적 패러다임 전환에서도 그대로 고정되어 있음이 옳은가. 아니면 진보된 변화가 있음이 옳은가. 이에 대한 견해차로 인하여 교회의 정체성 논란으로 이어지고 정통성에 대한 소모적 분쟁으로 교우들 간에 불필요한 상처를 주고받기도 한다.

물이 삼각형 그릇에 채워지면 삼각형으로, 사각형 그릇에 채어지면 사각형으로 바뀐다. 그러나 물의 본질 H2O는 변함이 없고 모양만 달라질 뿐이다. 교회사에서 루터의 종교개혁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양식을 구교에서 신교로 달라지게 만들었으나, 신앙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님의교회 정신은 시대적 교회패러다임변화에 따라 창립정신의 본질(유전자형)은 변함이 없이 계승 되어야 하나. 그 방

법과 방식(표현형)은 달라져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주님의교회 교회정신의 진보를 시대적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춰 필자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보았다.

- 1) 1988년 6월26일 주님의교회 창립에서 → 창립정신(①50:50 ②교회자체건물 무소유 ③무기명 현금)
- 2) 1996년 3월3일 창립 8년 한Campus내 Mission school(정신학원)과 Campus church(주님의교회)와의 만남에서 → 학원정신(①벽돌에 투자하지 않는다. ②선교 구제에 힘쓴다. ③인재양성 (청소년사역중심))
- 3) 2007년 창립20년 새 도약 선포 하나님나라위해 헌신하는 알곡공동체에서 → 하나님나라 정신 (①하나님나라의 사랑 ②이웃사랑 ③말씀사역에 충실함)

요약하면, 주님의교회 교회정신은 시대적 교회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라 개척시기의 창립정신→ 학원과의 만남으로 학원정신 → 새 도약 선포로 하나님나라 정신으로 이어지면서 주님의교회 교회정신의 진보가 이루어졌다. 창립정신의 본질(유전인자)은 진보과정에서 변하지 않았고 계승되면서 그러나 그 방법(표현형)은 변하였다.

C. 주님의교회와 정신학원의관계

주님의교회가 창립 된지 10년 만에 대강당 건축으로 명실공히 한Campus내에 두 이질적 존재인 Mission school(정신학원)과 Campus Church(주님의교회)가 자리 잡게 된다. 아름다운 양자관계로 출발하여 기독교계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음에 틀림없다. 세월이 지나면서 문제점이 노출되고 해결되기도 하고 갈등관계가 지속되기도 하고, 그러나 갈수록 은혜로운 관계가 훼손 되는 듯한 느낌은 자연 발생적 결과로만 보기에는 안이한 생각이 아닌가 여겨진다. 지금까지의 관계성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시점에 도달하였다고 봄이 타당 할 것으로 필자는 생각한다. 이재철 목사 저 '회복의목회'에서 언급한 대강당건축 이유와 1997년3월3일 정신여고 강당사용을 위한 합의서(정신여고 이사회와 주님의교회 건축위원회)내용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서로 필요로 했던 편의적 공존을 위한 약속이다. 이 약속이 시대적 패러다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편의적 공존이라는 변함없는 의식구조 속에서 고정되어 학교와 교회 사이에 적용되고 있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제 새로운 교회 패러다임 시대가 새 도약 선포로 출발했으니, 편의적 공존의 의식구조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의식구조로 변화해야 함이 마땅하다 하겠다. '새 술은 새 부대에' 그러면 새 술은 무엇 일까? 필자는 새 술을 창조적 공존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싶다.

편의적 공존이란 자기 극대화에 매달린 나머지 다 같이 손해 보는 모순적 상황에 빠지는 부분최적에 머물 수밖에 없다. 창조적 공존이란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되 협조 협력하면서 전체이익을 극대화하는 전체최적의 모델을 말한다. 따라서 편의적 공존의 의식구조에서 창조적 공존의 의식구조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진보)만이 정신학원과 주님의교회 간의관계정립 정상화에 최적의 길이라 필자는 생각한다.

1) 현재->편의적 공존에서

편의적공존	
Mission School 정신학원	+ Campus Church 주님의교회
1997.3.3 정신여고 강당사용을 위한 합의서 정신여고 이사회와 주님의교회 건축위원회	

2) 제2선언문 합의도출->창조적 공존으로

창조적공존	
Mission School 정신학원	+ Campus Church 주님의교회
하나님나라 세움을 위한 기독교치관을 가진 지도자양성 -공동 가치기반 구축을 목표-	

그러나 꼭 명심해야 할 것은 창조적 공존은, 공통의 가치기반 구축이 없을 때 의미가 없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공통의 가치기반 구축은 한Campus내에 존재하는 Mission school(정신학원)과 Campus Church(주님의교회)간의 창조적 공존에서, Mission이 핵심 매개체가 되어 '하나님나라 세움을 위한 기독교치관을 가진 지도자 양성'이라는 목표가 합의 도출되어야 진정한 의미를 가진다. 창립 22주년을 기점으로 이러한 내용을 압축한 양자 간의 제2선언문이 마치고 과거 대강당 건축 합의서 때와 같이 합의 도출되어 공표되어야 WinWin하는 출발이 될 것이다.

창립22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주님의교회)는 어디에 서 있는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겸손히 던질 필요가 있고, 이 던진 질문에 대한 답변의 방향과 성찰의 심도에 따라 시대적 패러다임 최적화에 접근할 수도 있고 멀어질 수도 있다. 과거 지향적이 될 수 있고 미래 지향적이 될 수 있다. 전환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주님의교회 진존가치가 결판난다.

시대적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필자의 견해는, 기술한 세 가지 항목에 대한 분명한 개념정립이,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 하루빨리 먼저 당회와 재직회, 그리고 전교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여 졌기 때문이다. 필자는 문제제기 차원에서 평소 숙고한 바를 먼저 함축함을 지면을 통하여 기술 하였다. 건전한 토론문화가 뒤따라기를 바란다. 또한 필자가 이 글을 쓰는 심정은 주님의교회 시대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융합'이라는 이 시대의 새로운 정신으로 이해하고, 조망하며, 포용하며, 바라 보려는 노력이, 우리 주님의교회 교인들에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바라는 마음에서이다.

맺음말

이번 창립22주년 특집호에서는 두 장로님의 본교회의 정체성과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고견을 실었다. 이글에 대해 많은 의견이 있을 것이다. 본 교회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정당한 절차와 규범을 지켜 발표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라도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고 싶을 때, 본지는 편집회의에서 타당성이 인정된 글은 자유롭게 게재해드릴 것을 약속드린다.

2010 전교인 수련회

주제: 주와 함께 걷는 길

일시: 2010. 7. 29(목) ~ 7. 31(토) / 2박 3일

장소: 충주호리조트 (www.chungjuho.net)

이번 전교인 수련회는 '주와 함께 걷는 길'이라는 주제로 세 가지의 길을 함께 걸어보고자 합니다. 영적오솔길을 통해 우리의 영성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길을 통해 하나님 말씀의 깊은 맛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가족의 길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과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새롭게 깨닫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안에 한 가족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가족들을 전교인 수련회에 부르고 계십니다.

영적오솔길

1. 레버린스 레버린스란 12세기에 성도들이 성지순례의 길을 대신하는 마음으로 정원을 걸으며 진행했던 '기도의 길, 묵상의 길'입니다. 전교인수련회에서 레버린스를 만나며 천천히 걸으면서, 중간 중간에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예수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성령님의 함께하심을 생각합니다. 모든 길은 침묵하며 걸어갑니다.

2.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 (Via Dolorosa)은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판결을 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까지 가신 길을 나타내는 '고난의 길' 이름입니다. 전교인수련회시 한적한 장소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만날 수 있습니다.

3. 주님의 발자취 교구가 하나 되어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보고자 합니다. 각자 모양도 다르고 표현방식도 다르지만 주님의 발자취를 함께 더듬어 볼 때, 모든 교구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 1교구 탄생 (성극) 2교구 중풍병자치유 (리빙픽처(Living Picture))
3교구 거라사 귀신들린자 (난타) 4교구 나사로 (나레이터 & 집단모션)
5교구 오병이어 (그래 결심했어!) 6교구 삭개오 (악극)
7교구 십자가/부활 (마임)

말씀의길

주강사: 림형천 목사 (나성영락교회 담임목사 (2003-현재))

림형천 목사는 노량진 교회 원로 림인식 목사의 아들로 장로회신학대학교와 프린스턴 신학대학교에서 목회학 석사과정을 마쳤으며 보스턴대학교에서 설교학을 전공했습니다.

현재 림 목사는 미주지역 최대 규모의 한인교회인 나성영락교회에서 제3대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림 목사를 통해 '주와 함께 걷는 길'이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수련회에 말씀의 단비를 내려주시길 것입니다.

가족의길

특강: 이호선 (장신대 신대원졸업 / 연대 상담학박사 / 한국노인상담센터 센터장 / 닥터리 상담연구소 소장) 강사님과 함께 "행복한 가족세우기" 주제로 진행됩니다.

가족레저활동



- 오락실** - 숙소 지하1층에 설치되어 있음 * 이용 요금: \500/각게임기구별
- 교육관** - 예배 및 모든 실내 PROGRAM 장소 * 보드게임 / 이용 요금: 무료
- 잔디썰매장** * 이용요금: \6,000▶\3,000/1인
- 산책 및 삼림욕** (4km - 1시간 30분 소요) * 지정된 코스 이용(준비물: 간단한 복장(운동화, 모자, 음료 등) * 지원자를 모집하여 단체로 출발하여 다녀옴 - 안내원 인도 * 이용 요금: 무료
- 등산로** (780m-2시간 40분 소요) * 지정된 코스 이용(준비물: 간단한 복장(운동화, 모자, 음료 등) * 지원자를 모집하여 단체로 출발하여 다녀옴 - 안내원 인도 * 이용 요금: 무료
- 노래방** * 이용 요금: \8,000▶\5,000/1시간당
- 놀이동산** (20%~50% 할인 금액) * 3종목 놀이(바이킹, 범버카, 디스코) \9,000▶\3,000/1인 * 범버 보트장: \7,000(1인), \12,000(2인) / 가족기차: \2,000 * 피어로: \2,000 / 다람쥐 열차: \2,000 / 동물열차: \2,000 * 비행기: \2,000 / 점핑 스마일: \2,000 / 헬리콥터: \2,000 * 사륜오토바이: \3,000 / * 종합놀이방(유아-게임기3대, 놀이터(공기주입), 점핑틀): \3,000
- 야외수영장** (4개의 풀장, 미그림풀 2대(10M)) * 이용요금: \8,000▶\4,000/1인
- 수상 훈련** (레프팅, 공동체 게임, 도하훈련) * 이용요금: \20,000▶\10,000/1인
- 바나나보트** * 이용요금: \12,000~\6,000/1인
- 대 운동장** * 축구 / 족구 / 배구 / 민속놀이 / 물방울 놀이 / * 이용 요금: 무료
- 씨바이벌** (단체전, 토기전, 람보전, 씨바이벌 사격) * 이용 요금: \20,000▶\9,000/1인
- 산악오토바이** * 이용 요금(30분): \15,000▶\8,000/1인